2강 한국 근현대문학의 배경 Ⅱ

(1교시)

◆ 제도로서의 학교와 소창의 향가해석

※ 학습목표
제도로서의 학교와 소창의 업적을 이해한다

▲ 제도로서의 학교
일본에는 외국어와 철학이 중심인 고등학교와 엘리트코스로서의 대학과 같은 제도들이 있었는데 조선에서도 이런 제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일본은 경성제대를 만들기 위해 애썼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자들을 어떻게 대학에 넣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1924년 고등학교를 급조해서 '예과'라고 하게 되었으며 이는 대학의 전단계로서의 학교가 된다.
경성제대는 경제학이 중심이었으며 조선어문학 전공이 있었다. 여기에 일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돈암 조윤재이다. 또한 제국대학 중 문학부와 법학부가 독립이 되어 있는 학교는 동경제대와 경도제대 둘 뿐이었다. 다른 제국대학은 모두 법문학부로 묶여 있었다.

▲ 경성제대의 제도
일본은 유럽 특히 독일에서 대학제도를 그대로 가져온다. 경성제대의 조선어문학부의 제1강좌에는 소창진평이라는 교수가 있었고 제2강좌에는 다카하시라는 교수가 있었다. 소창진평은 프랑스에서 언어학 공부를 하고 총독부에 있다가 경성제대로 들어온 사람이었다. 제1강좌에서는 언어학을 제2강좌에서는 문학을 가르쳤다. 한편 조선 문학을 가르친 사람으로 규장작 실장인 정만조가 있었다. 그리고 어윤적은 풍속사를 가르쳤다.
돈암이 조선어문학과를 지원한 이유는 조선독립운동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학은 독립 운동하는 곳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그는 학문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졸업논문으로 『조선소설사』를 쓰게 된다. 그는 소창진평의 조수 노릇을 하다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경성사범의 교사로 가게 된다.

▲ 소창의 향가 해석
돈암은 조선의 근대가 부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가 소창의 조수를 하던 중 소창의 논문이 나오게 되었으며 소창은『향가 및 이도에 대해서』라는 논평을 쓰기도 한다. 양주동이 이 책을 보고 평양으로 가서 밤낮 향가 연구를 하다가『청구 학총의 시인 원왕생가에 대하여』라는 책을 보게 되고 이때부터 양주동은 원왕생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고대시가는 정제된 고대의 예술작품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조선의 『삼대목』은 사라지고 『삼국유사』의 14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것은 해독 할 수 없었으므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소창이 해독하게 된다. 그는 언어학의 법칙을 유럽에서 공부하고 왔으며 전공이 방언학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창이 실수를 하게 된다. 향가의 형식에 대해서 그는 십구체가 아닌 팔구체를 향가의 기본형식, 즉 최종형식으로 본 것이다. 그 후 소창은 일본의 고대 시가 전공인 이쯔다 교수의 비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판을 받게 된다. 소창과 이쯔다의 논쟁이 일게 되고 이때 이 논쟁을 돈암이 지켜 보게 된다. 돈암은 소설사를 그만두고 시가로 전공을 바꾸게 된다.

▲ 규칙으로서의 반절성

돈암은 장자의 '포정해우'로 향가에 접근하며 법칙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사구체가 있고 원왕생가는 팔구체이다. 그리고 완성체는 십구체이다. 돈암은 이 규칙은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것을 찾아야 과학으로서의 학문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구체는 팔구체의 반이며 여기서 그는 '반절성'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다. 두 번째 법칙은 '전절 대 후절 소 법칙'이었다. 전절은 크고 후절은 작은 것이다. 이것이 그가 발견한 과학의 기초이다. 따라서 돈암은 조선만의 특수성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다.

▲ 근대문학에서 공간의 문제

한국근대문학에 있어서 공간의 문제는 '근대문학에 근대라는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였는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근대문학의 공간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2.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3.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2강 한국 근현대문학의 배경 II

(2교시)

◆ 돈암의 업적

※ 학습목표
돈암의 업적과 한국문학에 대한 입장을 이해한다

▲ 과학으로서의 문학
돈암의 '반절성의 법칙'은 향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었다. 가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시조에는 정확히 적용된다. 그는 이 법칙으로 『조선시가사 강』을 쓰게 된다. 그는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보성전문학교에 들어가고 해방이 된 후에는 경성제대의 교수로 제직하게 된다. 우리 시대의 독창적 사상은 '돈암의 사상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돈암의 업적은 의미가 있다. 문학을 최대한으로 과학에 접근시키려 한 시도가 그의 작업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의 정신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심리적 사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사이론은 '민족 행복론'으로 심리적 사상이다. 그런데 돈암은 타자를 베끼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는 '민족 행복론' 아닌 '민족 생존론'이다. 돈암이 이런 작업을 하면서 쓴 문학사가 1949년에 나온 『국문학사』이다. 이것은 사관 혹은 규칙으로서 쓴 최초의 사관이다. 돈암은 문학을 정신과학으로 보고 국문학사를 써간 것이다. 돈암은 국문학에 규칙을 적용하였다. 또한 돈암은 국문학을 유기체로 보았으며 국문학은 탄생되어 성숙, 쇠퇴기를 걸어가게 되었다.

▲ 한국문학의 조건
돈암이 한국문학을 보는 또 하나의 시점은 nation state이며 이는 국가가 없다면 문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nation state가 만든 언어(국가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사상으로서의 국어』(이연숙)를 보면 국어가 얼마나 강력한 이데올로기인가를 알 수 있다. 언어는 그 사상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국어는 국민국가가 강력한 폭력을 가지고 만든 언어이다. 따라서 지방, 계층 차이를 없앨 수 있는 국가언어를 통해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돈암의 입장에서는 국어(한글)로 된 텍스트만이 한국문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